



미 증시, 유럽 CPI 둔화, 2분기 실적 소화하며 강세

미국 증시 리뷰

19 일(수) 미국 증시는 영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로 인한 ECB 금리 동결 기대감, 넷플릭스와 테슬라 실적 기대감 유입되며 강세 (다우 +0.31%, S&P500 +0.24%, 나스닥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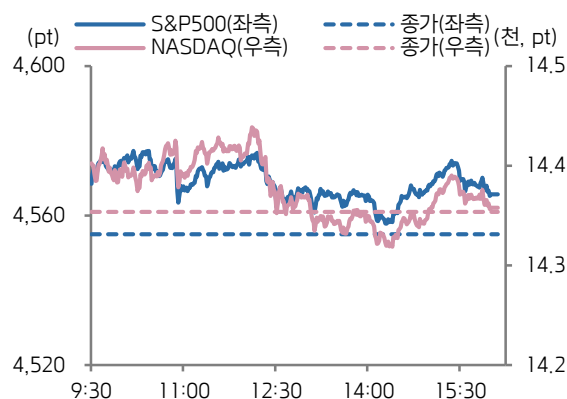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YOU 5.5%(예상 5.5%, 전월 6.1%), MOM 0.3%(예상 0.3%, 전월 0.3%) 기록하며 전월대비 하락. 특히 영국 소비자물가지수가 YOY 7.9%(예상 8.2%, 전월 8.7%), MOM 0.1%(예상 0.4%, 전월 0.7%)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러-우 전쟁 이후 최저치 기록. 집계측은 운송, 자동차 연료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식품 가격이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 약간 완화됐다고 분석.

미국 6월 신규주택 착공건수는 MOM -8.0%(예상 -9.3%, 전월 15.7%) 기록하며 한달만에 감소세 전환, 건축 허가건수 역시 -3.7%(예상 0.2%, 전월 5.6%) 기록. 신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30년 모기지금리가 7%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주택 건설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

업종별로 부동산(+1.1%), 유틸리티(+1%), 필수소비재(+0.9%) 업종 강세, 소재(-0.5%), IT(-0.3%), 산업재(-0.1%) 업종 약세. 골드만삭스(0.97%)는 2분기 순이익이 YOY 62% 급감한 부진한 실적에도, 상업용 부동산 감가상각과 대출 기관 그린스카이 매각과 관련 있는 일회성 비용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장중 상승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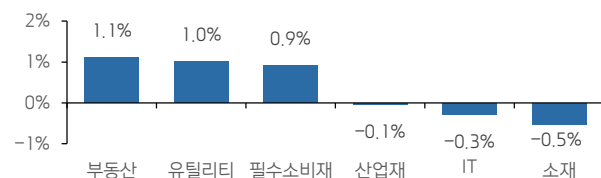
장 마감 후 테슬라와 넷플릭스 2분기 실적 발표. 테슬라(-0.71%)가 차량 가격 인하로 판매된 차량당 수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YOY 20% 증가 기록.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9.6%로 작년동기 14.6% 대비 하락하며 10% 하회한 영향으로 시간외에서 1%대 하락. 가격인하로 인한 낮은 평균판매가격과 픽업트럭 신차인 사이버트럭 생산비용이 이익에 부담을 주었지만,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 작년에 문을 연 독일과 텍사스공장의 지속적인 생산 증가, 에너지 및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사업에서의 성과로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고 언급. 넷플릭스(0.59%)의 2분기 매출은 YOY 2.7% 늘었으나 예상치 하회. 반면 주당순이익은 3.29 달러로 예상치인 2.9 달러 상회, 신규 가입자 수는 589만명 증가하며 시장예상 210만명을 큰폭으로 상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에도 3분기 가이드언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간외에서 6%대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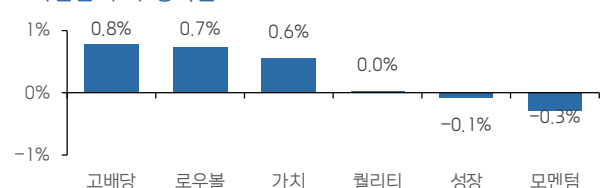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08.24	+0.02%	USD/KRW	1,265.70	+0.41%
코스피 200	343.11	-0.08%	달러 지수	100.28	+0.34%
코스닥	923.72	+1.05%	EUR/USD	1.12	+0%
코스닥 150	1,477.55	+2.16%	USD/CNH	7.23	+0%
S&P500	4,565.72	+0.24%	USD/JPY	139.60	-0.04%
NASDAQ	14,358.02	+0.03%	채권시장		
다우	35,061.21	+0.31%	국고채 3년	3.540	-6bp
VIX	13.76	+3.46%	국고채 10년	3.575	-7bp
러셀 2000	1,984.89	+0.45%	미국 국채 2년	4.766	+0bp
필라. 반도체	3,801.66	-1.06%	미국 국채 10년	3.748	-3.7bp
다우 운송	16,270.36	+0.79%	미국 국채 30년	3.840	-5.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62.28	-0.17%	WTI	75.35	-0.53%
MSCI 전세계 지수	701.76	+0.13%	브렌트유	79.55	-0.1%
MSCI DM 지수	3,042.53	+0.68%	금	2019.6	0%
MSCI EM 지수	1,022.12	-0.55%	은	25.22	+0.54%
MSCI 한국 ETF	67.12	-0.33%	구리	379.95	-0.4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0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65.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국내 2 차전지주들의 차익 실현 압력 vs 신규 매수세 유입이 유발하는 수급 변동성 2. 마진 악화로 인한 테슬라 시간외 주가 하락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3. 넷플릭스의 시간외 주가 급락이 국내 성장주 수급 여건을 악화시킬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써머렐리로 보기는 어려울 지라도 7 월 이후 한국, 미국 증 주요국 주식시장은 상승 모멘텀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추가흐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19 일 종가 기준, 코스피 +1.7%, 코스닥 +6.4%, S&P500 +2.6%, 나스닥 +4.1%).

상반기 대부분 기간을 강세를 구가하면서 주가 과열 불안감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FOMC, 인플레이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고 있긴 함. 일례로 몇 차례 데일리 코멘트에서 언급했던 시장 심리지표인 CNN Fear & Greed Index 는 현재 82pt 대로 연중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으며, 7 월 4 일 이후 극도의 탐욕 영역(75~100pt 사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단기 과열 우려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 7 월 FOMC 를 둘러싼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 일 발표한 BofA 의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조사 기간 7 월 6 일~13 일) 상 시장의 잠재적인 고리 위험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이번 결과에서는 고인플레이션 및 그로 인한 중앙은행의 긴축(6 월 36% → 7 월 45%), 은행 신용 경색 및 경기 침체(6 월 22% → 18%), 지정학적 갈등(6 월 17% → 7 월 15%) 등 여타 불확실성을 제치고 1 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이처럼 단기 과열 우려 속 상기 언급한 불확실성들이 증시 하방 압력을 만들어낼 소지는 있으나, 차익 실현 성격 그 이상의 하방 압력을 초래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가령 인플레이와 긴축이 시장 불안 1 순위로 자리잡은 것은 지난 6 월 중 BOE, ECB 등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를 이유로 긴축을 되려 강화한 충격이 컸음. 하지만 미국의 6 월 CPI 와 PPI 가 급락한 데 이어, 전일 발표된 영국의 6 월 CPI(7.9% vs 컨센 8.2%, 5 월 8.7%), 유로존의 6 월 CPI(5.5% vs 컨센 5.5%, 5 월 6.1%)가 둔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미국이나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들 국가 역시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BOE 나 ECB 모두 추가 인상을 일정부분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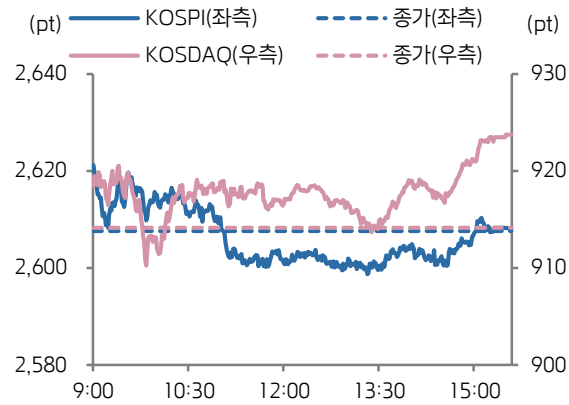
또 아직 국내 반도체, 자동차, 미국 빅테크 등 메인 업종들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2 분기 실적시즌이 종립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밸류에이션 상 증시의 하단을 견고하게 만들어 요인이라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2 차전지주들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 지속에 따른 여타 업종에서의 수급 이탈 현상 등으로 코스닥 중심의 강세를 연출한 채로 마감(코스피 +0.02%, 코스닥 +1.05%).

금일에도 2 차전지주 차익 실현 압력 vs 신규 매수세 유입 등에서 기인한 수급 변동성 확대 속 미국발 재료에 영향을 받아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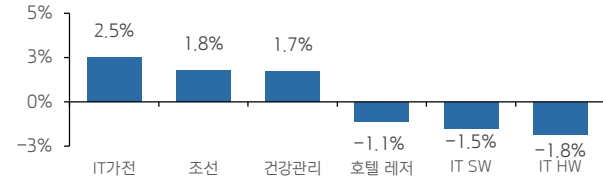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테슬라(-0.7%)가 인도량 증가 등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매출 총마진율(18.1% vs 컨센 18.2%, 1Q 19.0)이 악화됐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2%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2 차전지주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또 넷플릭스(+0.6%)도 부진한 매출 및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로 시간외에서 7%대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관련 성장주들의 수급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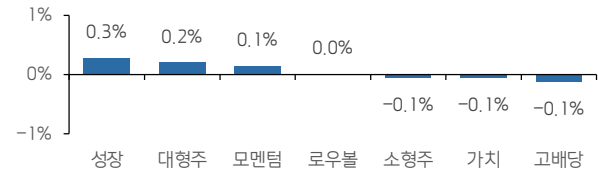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